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 지원 요청

신원식 정무부지사, 국회 방문 지역·연고 국회의원 만나 중점 확보 사업 반영 건의

전북도가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지역 정치권에 협조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대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 확보 사업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대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 확보 사업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신원식 부지사는 김성주 의원, 신영대 의원, 이원택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갑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조사 매입',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등 중점 확보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먼저, 해양 무인이동체 기술 검증에 최적화된 새만금 내수면에 구축하는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의 국비 165억 원 전액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사업인 국산섬유 활용 수소

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비 반영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전북도 현안으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으며,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통과에도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점 필수 예산사업에 대해서 국회단계 증액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국회 상임위·예결위에서 신규·증액 반영시키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10월 중에는 행정·정무부지사가 기재부 예산실 핵심 라인 방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업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18일 주간부터는 지역 국회의원, 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개회, 국회단계 예산 신규·증액 반영에 전력 투구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인권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전북도 인권위원회, 인권기관·단체·도 인권담당관 인권 현안 소통·주체간 공감대 형성·파트너십 구축

전북도 인권비전인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현안 소통 및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도와 전북도인권위원회가 29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인권위원, 인권기관·단체 대표, 도 인권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인권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분야별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북도인권위원과 인권기관·단체 활동가 및 도 인권담당자의 파트너십 구축과 인권역량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발전과 인권 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방안에 대한 강의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현안 및 해결방안 토론회로 구성했다.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전라북도인권위원장)의 '지자체 인권제도의 발전과 인권 거버넌스'의 강의를 통해 지역

내 인권관계자들에게 인권제도와 이행행정과 인권협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역내 사회적약자의 인권현안 및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전북도 내의 분야별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및 주체들간의 인권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도내 인권옹호자회의체 구성을 통한 인권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설동훈 전북도인권위원장(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은 "전북도와 인권기관 및 단체들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영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인권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인권활동가 등과 협력을 통해 민·관 인권정책 거버넌스 확대와 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권정책 추진에 협력과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 공모사업 선정

전북도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진안군은 국비 2억2천5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사업'은 산촌 지역에 국·공유지 산림과 시설물을 이용해 귀산촌자에게 유휴 산림자원을 활용, 소득원 등 창출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진안군 진안읍 균유림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사업화해 귀산촌인, 산촌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 지원과 함께 산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전달해 산림자원에 대한 만족도 상승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 구축, 산촌교육 프로그램 및 임산물 체험장 운영, 여름드림 같은 부가까지 높은 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산촌교육 실현의 장 제공과 귀산촌인의 안정된 정착은 물론, 임산물 생산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산촌과 도시를 잇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 '최우수'

전북도,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표창...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상단의 위치에 당당히 섰다.

도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시·도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15년부터 내리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관리했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사업이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공급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제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도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진 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

굴해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이달의 혁신주인공' 지역정책과 최승환 주무관

전북도 지역정책과 최승환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 올해 9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도는 매일 다른 주제로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9월은 창의적 아이디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생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행정의 달인 주인공'을 선정했다.

최승환 주무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담당 공무원으로서, 토지수용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도내 지역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공헌했다.

최 주무관은 재결 신청전에는 토지소유자와의 성실한 협의 준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고, 민원을 최소화 했다.

또한, 수용재결 신청 건은 철저한 현지 확인 및 누락물건 방지를 통해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로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현재 보상소송건수 제로를 유

지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수용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해 당해 연도 신청 재결에 대한 이월건수 최소화와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승환 주무관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며 "수용신청 전 성실한 협의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재결 전에는 현장 방문해 사업시행자와 소통 및 소유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검토해 소유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민원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도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해 공익사업 추진과 도민들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도에서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공정한 수용재결이 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